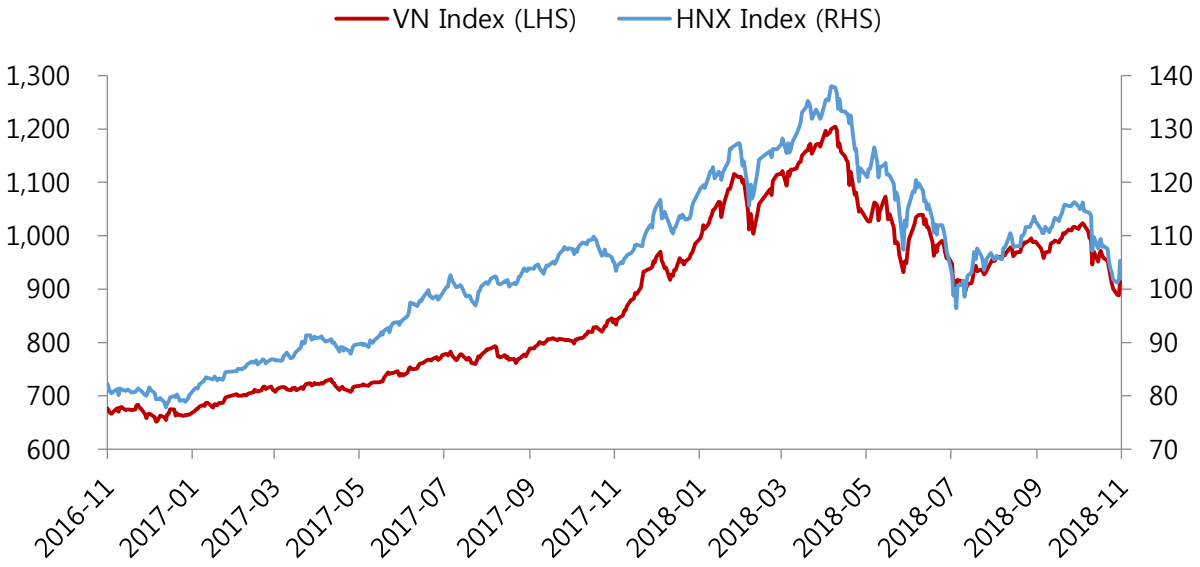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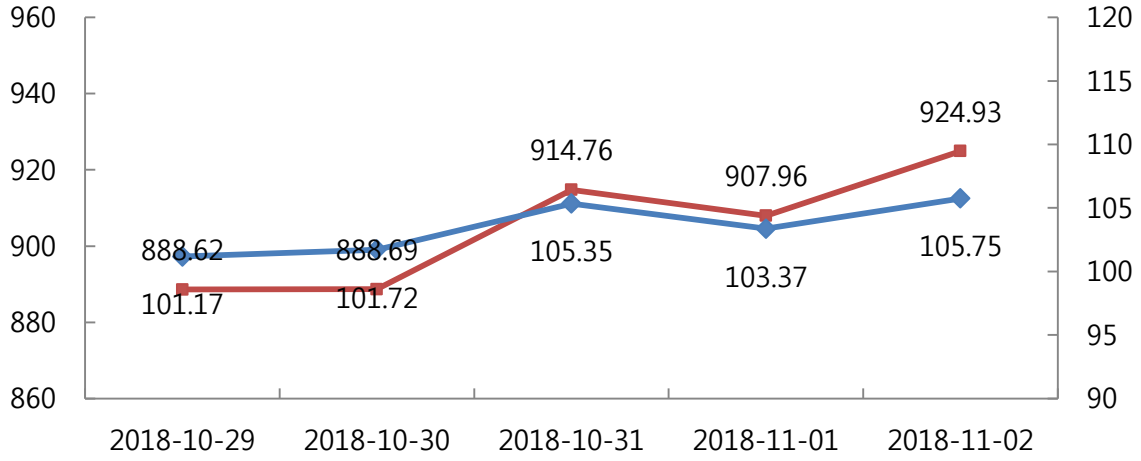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폭락을 거듭하던 베트남 주식시장이 금요일 한숨을 돌렸다. VN 지수는 924.93 포인트로 마감해 900 포인트 선을 지켰고, 105.75 포인트로 마감한 HNX 지수도 100 포인트 선을 유지했다. VHM, BID, VCS 등의 주요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 개별 기업 뉴스

○ PAN Group, 외국인 소유지분 49%로 제한해

PAN Group이 특별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결정문을 승인했다. 국내 기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거 PAN Group은 외국인 주식 보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 소유 지분 비율이 51%를 넘어가면 외국계 회사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다. 기업법과 개정 증권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는 경제 조직 설립, 자본 출자, 및 주식 매입, 증권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조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PAN Group은 49% 지분 제한으로 계속해서 국내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조건 및 절차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투자자 Vidifi 파산위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투자자인 베트남 인프라 개발 금융 투자(Vidifi)가 연이어 지속되는 손실을 끝내기 위해 정부의 자본 출자 약정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Vidifi는 지연되고 있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설치 비용과 관련해 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청원을 지속하고 있다.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갔다. 3년이 지난 이후,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가 베트남에서 가장 현대식의 고속도로임에도 프로젝트 개발사는 프로젝트 건축에 들어간 막대한 대출로 여전히 하루 25억 동(109,000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상쇄됐지만,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대금이 도착하지 않아 높은 이자 지불을 지속하고 있다.

2. 주요 경제 동향

■ 유가 변동으로 하노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해

하노이 통계청에 따르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0월 하노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달에 비해서 0.24%, 작년에 비해 4.09%가 올랐으며, 운송비는 1.42% 올랐다.

10월 22일 유가는 리터당 144-244 동 사이로 감소했지만, 하락폭은 지난 10월 6일 577-675 동 상승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평균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모자 및 신발류의 가격이 지난 달에 비해 0.48% 올라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문화, 엔터테이먼트 및 관광 서비스 가격은 이전 달 보다 0.44% 상승했다.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폭은 비교적 미미하다. 주택, 전기, 수도, 연료 및 건축 자재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1% 증가했다.

■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 급성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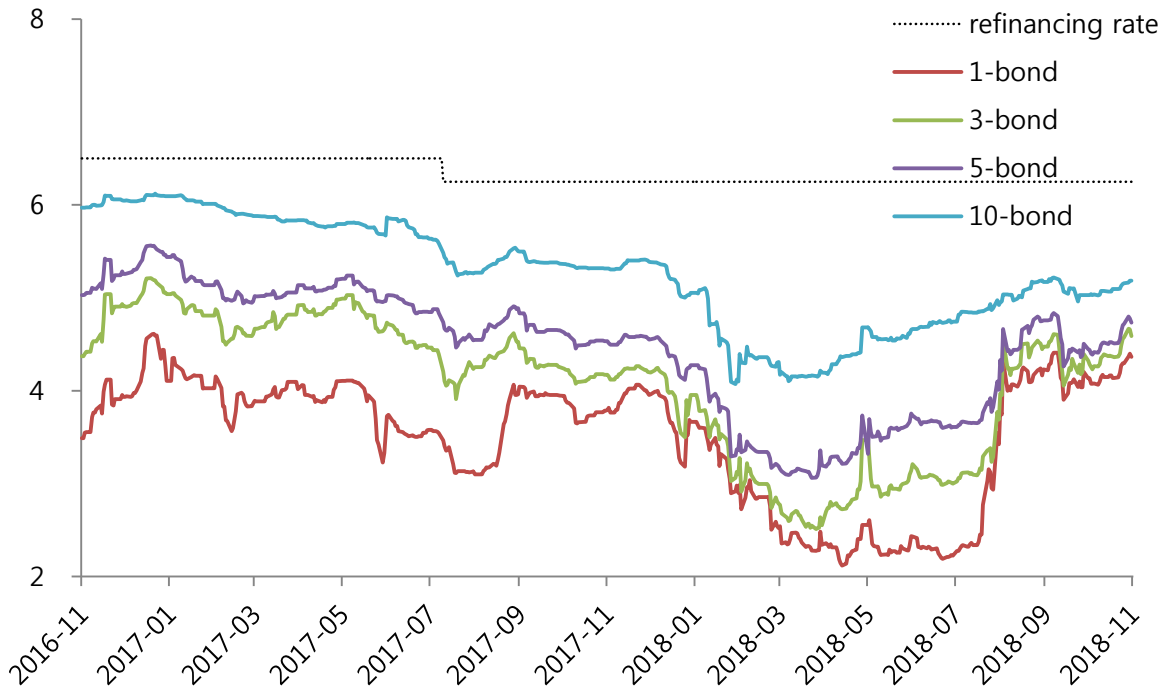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동안 소비자의 구매력이 9.31%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대 10개월 간 구매력 증가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며 소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총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매 부분 및 서비스 부문의 총 수입은 작년에 비해 11.4% 증가한 3600조 동(1545억 1천만 달러)이다. 인플레이션 증가분은 9.31%로 2017년 10월 간의 8.79% 성장보다 높았다.

식품 구매력이 13.3%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의류(12.6%), 가전제품(12%), 문화 및 교육 상품(11.6%), 차량(11.6%)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지금까지 호치민 시와 하이퐁, 탄 호아 및 다낭을 포함한 도시와 지방들의 구매력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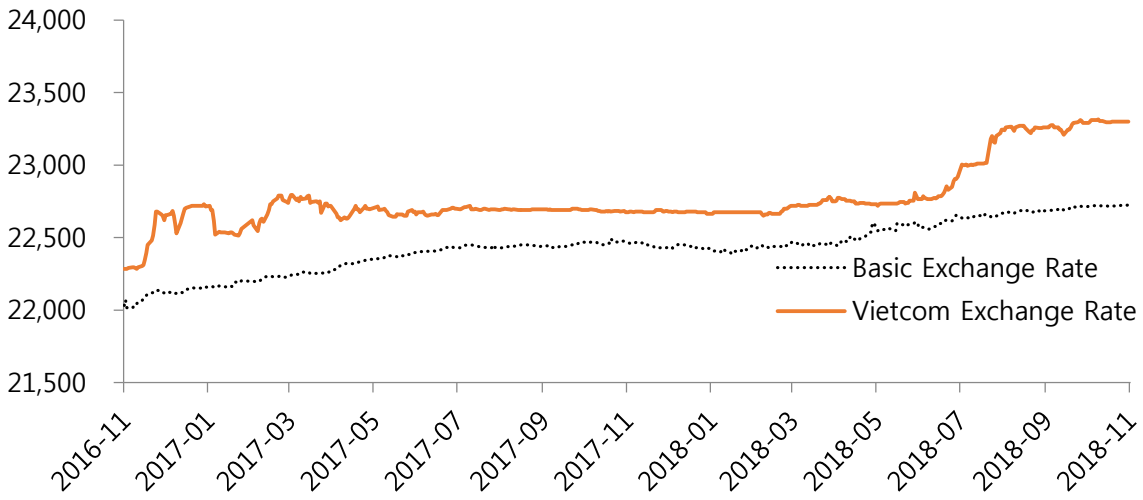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11-02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265	23,275	23,365



■ 해외 시장 진출하는 베트남 은행들

다수의 상업은행들이 해외에 지점 및 거래소를 개설해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해외 사업 확장은 베트남 대형 은행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베트남 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다. 거의 모든 대형 은행들이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0년 말 Military Bank가 라오스에 지점을 열었고, 이후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BIDV, Sacombank, SHB, Agribank 등이 뒤를 이었다. 미얀마 역시 빠른 경제 성장 속도로 인해 베트남 은행들이 진출하는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외국 투자청(FIA)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베트남 기업들의 외부 투자액은 1억 4,900만 달러 가량이었다. 은행들은 이 중 70%인 1억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베트남은 16개 국에 투자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각 53%와 17%로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었다.

■ 높은 이자율로 BOT 프로젝트에 어려움 따라

BOT 투자 도로 프로젝트 참여 개발자들이 연 10.5%에 달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 월까지 68 개의 도로 프로젝트가 BOT 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총 투자자본은 208 조에 달한다.

Cao Bang 지방 당 위원장 Lai Xuan Mon 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BOT 방식으로 건설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2030 년 이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Mon 에 따르면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Mon 은 BOT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시중 은행이 대출 이자를 10.5%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Deo Ca Group 부회장 Tran Van The 또한 은행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제는 베트남의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작은 데 있다. 그는 또한 BOT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법과 투자법 간 갈등이 많다는 지적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베트남 정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확장계획

베트남 정부가 2050 년까지 하노이 노이 바이 국제 공항을 연 8 천만-1 억 명의 승객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Trinh Dinh Dung 부총리는 교통부에 몇 해 전 작성된 공항 확장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부총리는 노이 바이 공항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공항이자 북쪽 지방 국제 교통의 요충지지만,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노이 바이는 2 천 5 백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작년에는 2 천 3 백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부총리는 교통부에 2050 년 목표의 공항 개발 계획을 2030 년까지 수립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공항 수용 가능 인원을 2030 년까지 5 천만 명, 2050 년까지 8 천만-1 억명으로 늘리는 것이 계획이다. 총 55 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에 35 억 달러, 토지 수용 및 주민 이주 비용으로 20 억 달러가 들 예정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베트남 하노이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0 월 31 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풀만 하노이 호텔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인 하노이 앤 코리아 ICT 데이 2018'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두 나라의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정부 관계자와 유관 기관 및 기업, 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우리 핀테크 기업을 베트남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수한 핀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동남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행사기간 동안 '정부기관 면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센터도 현지 핀테크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fnnews.com/news/201810311512140662)

■ 베트남 진출 앞둔 캠시스, 인천 본사서 현지 사찰단 전기차 체험

캠시스가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통한 베트남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 일 캠시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부 공무원을 포함해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지 사찰단은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를 직접 체험 해보기 위해 전날 인천 송도에 위치한 캠시스 본사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산업부가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국 내 관련 기업과 함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방문함으로써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캠시스 전기차 마케팅담당 임원은 베트남 사찰단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캠시스의 초소형 전기차 CEVO(쎄보)-C 를 소개했다. 이어 베트남 사찰단과 함께 베트남 친환경 차량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CEVO(쎄보)-C 를 직접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More Information: https://www.ajunews.com/view/20181026104801875)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